

정후식칼럼



논설실장·이사

다시 도진 정쟁 바이러스

을 기울이고 있다. 출퇴근 인사 모습을 짝은 동영상상 올리거나 코로나 발생 현황과 안전 수칙을 공유하는 식이다. 방역 활동에 힘을 보태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역 의원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신인들은 발만 동동 구른다.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는 판에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을 만나기조차 힘들니 더더욱 불리해졌다

이제는 총선 이슈였던 정권 심판론, 야당 심판론, 검찰 개혁 등은 모두 코로나에 묻혀 버렸다. 각 정당의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과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그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코로나 '총선 표심' 뒤흔든다

이동과 대면 접촉을 꺼리며 외식 대신 집밥이나 배달 음식을 선호하다 보니 음식점과 상가는 손님이 뜰때 썰렁하다. 최악의 경영난에 휴업이나 폐업을 택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코로나 확산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풍경도 변화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선거운동은 사실상 중단됐다. 선거사무소 개소 같은 행사가 취소됐으며, 유세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은편칼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언

다. 대구에서 대규모의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을 것인데 신천지 사태로 인하여 전국 곳곳에 퍼졌고 마스크가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처럼 되어 버렸다

우선 마스크의 수요를 줄이는 방안이다. 마스크는 질환에 걸린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기침을 통해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는 목적이 크다

따라서 전염이 되었다는 것은 환자와 매우 가까이 대화를 하면서 타액이 입술 주변에 묻었거나 환자의 손에 묻어 있던 바이러스가 환자가 만지는 물건을 만져서 이따가 다른 사람의 손에 옮긴 후 다시 새로운 사람의 입이나 코, 눈으로 침투해

는 통합당 지역이나 손절해도 된다'(민중당 청년위원)거나 온라인에 올라온 '코로나가 대구·경북에서만 심각한 이유는 한국당과 그들을 광신하는 지역민들의 무능 때문'(부산 지역 당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글들도 논란을 불렀다

코로나 대응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보수 통합으로 민주당과 양강 구도를 형성한 미래통합당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은 현 상황을 '초기 대응 실패'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을 향해 책임론 공세를 퍼고 있다

"정치권은 차라리 침묵하라"

은 나라가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 관계자들의 이같은 행태는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국론을 분열시켜 재난을 세력 확대의 기회로 삼으려는 저열한 정쟁 아닌가

확진자와 사망자가 연일 속출하는 데 제일 앞에서도 빛을 발하는 건 의료진과 시민들의 헌신이다. 의사와 간호사, 보건소 직원, 방역 당국 공무원, 119 구급대원들이 방역의 최전선에서 온몸을 던

져 분투하고 있다. 방역 활동에 지쳐 땀에 젖은 방호복을 입은 채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장기간 고글과 마스크를 쓰다 이마와 콧등이 헝어 반창고를 붙인 그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찡해 온다

80년 5월 치열한 고립을 경험했던 광주 시민들은 나눔과 연대, 대동세상의 광주 정신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유권자인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진다. 따라서 정치권도 이런 책임 공방과 지리한 정쟁을 멈추고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가 지금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재난 속에서도 자신보다 공동체의 이익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기에, 머지않아 이 시련도 극복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의 잘잘못도 드러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누가 잘못했는지 잘못했는지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심판하면 될 일이다



임명재 박사

코로나가 온 나라를 침체에 빠뜨리고 있다. 초기 대응을 잘하는가 싶었는데 의외의 복병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이고 그와 함께 경제도 이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에 빠졌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과거 메르스와 신종 플루와 같은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와 전투에서 승리했던 경험을 하였고 덕분에 코로나도 신속하게 제압하고 일상 생활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를 앞두고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 것인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가장 심각한 것은 '마스크 대란'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염이 시작된다. 건강 한 피부로 침투되지는 않는다. 주로 타액에 의해 전염되기 때문에 기침을 하면 입의 손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를 스스로 입이나 코에 갖다 대지 않았거나 손을 자주 씻고 손 소독제로 예방을 하였다면 전염될 확률이 제로까지 낮아질 수 있다

마스크는 전 세계적으로 부족해질 것 같다. 마스크는 인체에 적용되는 제품이기에 생산과 판매에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멸균 시설에서 작은 이익을 위해 운영해야 하는 품목이라서 임금 이하비싼 선진국에서 생산할 수 없고 반대로 기술력이 낮은 국가에서도 인체에 부

작용이 없는 양질의 마스크를 생산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자동화 기술을 갖추고 있고 식약처에서 품질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마스크를 생산 공급할 수 있다

다행히 마스크 5부제와 약국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중복 구매를 차단하면서 배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인 것 같다

최근 마스크 양보하기 운동도 펼쳐지고 있다. 과거 우리는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술한 역경을 극복해 왔다

기고

왜 아직도 식목일이 4월인가?

강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이상 기후는 지구 온난화가 주범이다. 유엔의 기후 변동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대기 중 온실가스 증가로 지난 100년 간 세계 평균 기온은 0.74도 상승하였고 금세기 말 최고 6.4도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더워지는 지구를 지키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화석 연료 사용 감축과 더불어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것이다. 잘 가꾸어진 숲에 있는 큰 나무 한 그루는 네 사람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산소를 공급해 주며, 산림 1ha는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연간 16t 흡수한다

일처럼 치산 녹화의 선진국에 이르기에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럼에도 불철 나무를 심는 사람은 갈수록 줄고 있다

식목일(日)을 앞당겨 3월 한 달을 식목일(月)로 지정하여 집중 홍보하자

서 나무 심기에 적기인 날도 2주 정도 빨라졌다. 오히려 4월에 나무를 심으면 5월과 6월 봄철 가뭄을 겪게 되어 나무 생육에도 안 좋다

식목일(日)을 앞당겨 3월 한 달을 식목일(月)로 지정하여 집중 홍보하자



김춘래 열정드림교육원 원장

갈수록 지구는 이상 기후로 인해 자정 능력을 잃고 심한 폭설을 앓고 있다. 유례 없는 홍수와 태풍 등의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꾸준한 산림 녹화 사업으로 민둥산이 사라졌다

社說

문 닫는 자영업자 실질적 구제 대책 세워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시민들이 감염을 우려해 외출을 기피하면서 손님이 끊기고 매출이 급감하자 휴업이나 폐업을 택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광주시 동구 구도심 일대만 봐도 휴업 안내문을 내건 음식점들이 늘고 있다. 어느 삼겹살 전문점 주인은 '손님이 없는 탓에 문을 열어야 인건비 건지기도 힘들어 지난달부터 휴업 중'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차마 휴업에 들어가지 못한 일부 자영업자들도 마감 시각을 한두 시간 앞당기거나 주말 또는 평일 영업만 택하는 등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진태 공천 취소하라”는 5월단체의 요구

미래통합당의 공천 물갈이 과정을 지켜보려던 한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과거 혐오 발언을 했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비례대표 김순례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 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소하고 있다”고 했다가 당원권 3개월 정지를 받은 사람이다

대구의 정태욱 의원은 2년 전 지방선거 때 '이부방천'(이혼하면 부천에 살고 망하면 인천에 산다) 발언을 했다

음식점으로 30곳이 문을 닫았다.

대리운전 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 고용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절박하다. 1500명에 이르는 광주·전남 지역 대리운전 기사의 수입은 평소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따라서 국회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를 빛은 바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귀하심' 몹이 있었지만 탈락했다

이에 오월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성명을 통해 “5·18 망언을 일삼아 온 김 의원 공천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성명을 통해 “5·18 망언을 일삼아 온 김 의원 공천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無等鼓

마스크가 처음 등장한 것은 고대 로마 시대다. 필리니(서기 23~79년)라는 박물학자는 유해 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동물의 방광으로 만든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한다

지금처럼 호흡이 가능한 마스크는 1899년 영국의 해군 의사가 만들었다

마스크

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나눠 주었다. '우씨 마스크'로 불리는 마스크 덕분에 사망자를 크게 줄일 수 있었고 1911년 4월 열린 한국 페스트연구회에서 발명품으로 인정받았다

1932년 상하이 콜레라가 유행할 때는 우씨 마스크를 착용한 중국인 사망률은 7.4%에 그쳐 조계지 외국인 사망률 30%보다 훨씬 낮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에서 공적 마스크란 개념이 등장했다. 장담하지만 방역 현장에서 본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이번 주부터는 '마스크 5부제'까지 시행되고 있다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